



약간 크고隅柱는 홀림없는 四角인데 모서리를 죽였다. 屋身前面中央에 「華山大師 舍利塔」後面에 「京石工 黃大仁」이라 깊게 음각하였다. 各層의 屋蓋石은 屋身石과 別石이

며 四段받침으로 처마끝은 수직으로 굽었으며 四隅에 전곡이 있어 오랜 手法를 보인다. 三層塔身위에 露盤과 覆鉢을 두고 그위에 다시 작은 蓋石을 얹었는데 四隅棟끝에 隅花를 썬했다. 다시 露盤 覆鉢을 얹고 그위에 연봉을 놓아 맞추었는데 연봉은 땅에 떨어져 있다.

全體의 細長하고 基壇部가 약하여 安定感이 不足하다. 彫刻手法과 樣式은 쇠퇴하여 빈약한 것이지만 그런대로 李朝末의 特性을 各部分에 나타내고 있다.

龍仁 貢稅里 五層石塔

李 殷 昌

京畿道 龍仁郡 器輿面 貢稅里를 찾으면 커다란 貯水池 東北岸인 塔洞部落에 逸名寺址가 있다. 寺址는 앞에 넓은 湖水를 끼고 뒤에는 우거진 숲을 두어 自然風景이 아름다우며 아늑한 洞口안에 자리잡고 있으니 民家附近에는 礎石、築臺 등의 殘石과 瓦片이 散在하고 있다. 그리고 黃永洙氏家의 西便에 五層石塔一基와 石佛座像 一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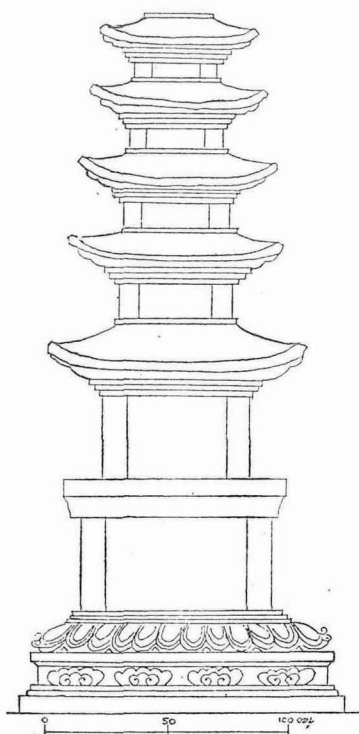
石塔은 花崗石造로 雅淡한 모양을 한 中形塔인바 相輪部는 없어졌다. 基壇은 重基壇인즉 菱角形과 直角形의 層級을 이룬 地盤石위에 基壇

下臺 中石과 甲石이 놓여 있는데 中石의 四圍各面에는 秀麗한 眼象을 四個씩 配置하였고 甲石上面에는 流麗한 伏蓮紋을 彫刻(總二十四葉) 하였으며 四隅角에는 唐草紋式으로 된 귀꽃을 彫刻하였으며 伏蓮紋안으로는 上基壇 中石을 받기爲한 三層級의 「물당」이 表示되었다. 이 甲石위에 長大한 上基壇이 造成되었으니 上臺 中石은 四枚板石으로 짜이었고 四隅柱가 表出되었으며 이 上臺 中石을 上臺 甲石으로 덮었는데 厚高한 一個石으로 下部는 灣曲線으로 處理하여 特異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塔身은 總五層이 完存하고 있으나 初層은 長大한 一個石으로 된 屋身이 놓였는데 四隅柱가 表示되었고 또 一個石으로 된 屋蓋石이 놓였는데 屋蓋表는 四區落水面이 緩漫하고 屋蓋裏는 三段級의 屋蓋石받침이 彫出되고 檐下는 曲線을 보이다가 四隅轉角에 이르러 強한 反轉을 이루었으나 鈍厚한 感을 주고 있다. 二、三、四、五層의 塔身도 一個石으로 된 屋身石과 屋蓋石이 初層樣式과 같이 繼續되었고 二層以上은 漸次 短縮比例를 보이고 塔體의 安定感을 주고 있다. 그리고 各層屋蓋石頂上에는 다음 層 屋身石을 받기爲한 層級이 造出되었다.

相輪은 없어지고 最上層의 屋蓋石頂上에 直徑 四cm의 圓孔이 殘存하고 있어서 既往의 擦竿과 相輪을 連想케 한다.

以上記述한 此 貢稅里 五層石塔의 造塔樣式에서 다음과 같은 特異한



貢稅里五層石塔實測圖



塔身の屋蓋石の「屋蓋石받침」이 없으면 三級으로 統一되고 擔下가 曲線을 지우며 四隅轉角에서 강한 反轉을 보이는 例는 저 佛日寺址 五層石塔의 屋蓋石樣式에 相通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基壇部의 樣式과 屋蓋石의 手法는 高麗時代의 石塔樣式으로 高麗中期の 所作으로 推定된다.

註

- ① 基壇部에 眼象과 蓮花紋이 彫刻된 石塔의 例
- ① 淨兜寺址五層石塔(眼象) ② 定山西亭里九層石塔(眼象) ③ 論山灌燭寺三層石塔(眼象) ④ 小臺里五層石塔(眼象) ⑤ 江陵正東津里五層石塔(眼象、蓮花紋) ⑥ 神福寺址三層石塔(眼象、蓮花紋)
- ② 考古美術 第三卷第一號 拙稿參照

資 料

新羅銘瓦片 二題

李 弘 植

近者에 慶州에서 入手한 左記 在銘의 瓦片을 紹介한다.

一、「官瓦」「東窯」

慶州東郊 普門里에서 採取하였다는데 平瓦에 「官瓦」「東窯」를 陽刻으로 反覆시킨 瓦片이 數片 나와 있는데 管見에 의하면 이것은 從來 보지 못한 瓦片이다. 新羅時代를 通하여 宮闕, 寺院, 官衙에 設었던 優麗한 蓋瓦가 無數하게 나오고 있으며 下代의 憲康王代에는 民屋도 다 蓋瓦를 設었다하니 莫大한 官需, 民需의 蓋瓦가 播造되었을 것이다. 이 瓦片을 通해서 생각되는 것은 우선 「東窯」에서 구어낸 官瓦」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東窯는 常設의 窯로서 그 自體가 官營인지 또는 官需, 民需의 蓋瓦를 隨時로 注文에 應하여 播造한 곳인지 알 수 없으나 後者의 境遇가 自然스럽게 보인다. 그리고 「東窯」라는 名稱에서 西窯, 南窯, 北窯도 있을 수 있다는 點이며 이 窯는 瓦, 埴專門의 窯인지 또는 이 외에 一般土器도 구어냈는지 모르겠으나 普通으로 생각할 때에 瓦窯만으로도 넉넉히 別途로 成立되었을 것이다. 三國時代以來로 瓦博士도 보여서 瓦匠의 重要한 技術은 瓦當의 優麗한 文樣의 彫刻뿐만 아니라 窯의 構築, 瓦土의 練成, 燻瓦의 熱度 등 簡單치 않은 能熟한 技術이 必要한 것을 近者의 補修工事を 通해서 새삼스러이 느끼는 바이라 이와 같은 瓦片이 特히 本人의 關心을 갖게 되었다.

二、「令妙寺」在銘瓦

慶州 西南郊 輿輪寺北方(約三百m)에서 採集하였다 한다. 「三國史記」에는 善德王四年에 靈廟寺가 落成되었다고 하는데 「三國遺事」에는 靈妙寺로 되어 있고 葛項寺塔에는 零妙寺, 禪林寺址出土 鐘銘에는 令妙寺로 되어 다 같은 절을 그렇게 表記한 것으로 보며 이 瓦銘도 右記의 鐘銘과 같은 것으로 가장 省略된 普遍的인 것으로 보겠다. 新羅人의 漢字使用法에는 往往이 이와 같은 自由로운 面을 보이고 있는데 元來 正式으로는 「三國史記」의 것이 맞을 것이다. 이 靈廟寺의 位置에 對하여서는 아직 몇 가지 說이 있는만큼 輿輪寺北쪽에서 出土된 이 瓦片도 後考에 資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